

연구역량·균형발전 방점... 1만3311개 과제에 9104억 투입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계획

인문사회 3630억, 이공계 5474억
학술 DB 대학 사용권 구축 확대
1월 중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

교육부가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총 9104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인문사회분야·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1만331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5469개 인문사회 과제에 3630억원이, 7842개 이공계 과제에 5474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학자료 통합 운영체제' 구축 본격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학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개인연구) ▲대학 연구기반 확충(집단연구) ▲한국학 연구 지원 성과확산 및 기반구축으로 나뉜다.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개인연구)'은 학문후속세대부터 우수연구자에 이



교육부가 '2022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전 학문분야의 학술활동 지원에 약 9000억원 투입키로 하고, 지난 10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학술 및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르기까지 인문사회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성장단계 별로 지원하며, 총 4985개 과제에 1268억원이 투입된다.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인문사회분야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하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22년 신규 과제로 장기과제 300개, 단기과제 1800개 등 총 2100개 과제를 지원한다.

'대학 연구기반 확충(집단연구)'은 대학의 인문사회 연구기반 거점을 조성해 대학이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84과제에 총 107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인문사회분야·복합 연구 및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 중 '미래공유형'을 신설해 2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신규 과제 수를 기존 10개 과제에서 16개로 확대해 사회과학 관련 다양한 의제(어젠다)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학 연구에는 총 854억원이 투입돼 200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관계 기관에 분산된 한국학 자료를 모으고 공유·확산하기 위한 '한국학자료 통합 운영체제(플랫폼)' 구축을 본격추

진한다.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된 '성과 확산 및 기반구축'에서는 학술활동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시민·전문연구자·대학 등 사회 전반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유리·학술데이터 등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과제로 포함된 학술데이터베이스(DB)대학사용권(라이선스) 구축을 기존 48종에서 57종으로 확대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공분야 대학 연구소 내실화...1월 중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은 대학의 이공학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진연구인력이 핵심연구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에서는 올해 1551명의 '박사과정생'과 '박사후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 584개 과제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이 117억원, 967개 박사후국내외연구에 537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연구기반 구축'에는 381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인력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 연구소 내실화와 장비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집적하고, 해당 장비들을 전문인력이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자유공모 지원대상을 대학의 공동실험실습관까지 확대해 전문인력의 활동 지원범위를 넓혔다.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하고 연구비 지원이 적은 연구자·학문분야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에서는 ▲창의·도전 연구기반 지원(3218개 과제, 1555억원) ▲보호연구(283개 과제, 287억원)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1648개 과제, 1047억원) ▲학제 간 융합(21개 과제, 52억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2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대학·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 결과 발표

'둔촌초·위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된다

학생 발달 단계 고려 교육공간 구분
상반기 실시설계... 내년 9월 재개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첫 설계 공모 결과 관내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 당선된 학교는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을 거쳐 내년 9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변모해 재개교할 예정이다.

둔촌초 설계공모 당선작은 '모두의 학교(Union Ground)'라는 컨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6070㎡ 규모로 지어지게 된다. 인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공원과 주거, 일상의 공감과 지적 체험이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가능성을 열어주도록 설계됐다.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요소인 '공간개선'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저학년(1~3학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감도

/서울시교육청

년)과 고학년(4~6학년)의 교육공간을 구분해 설계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로 소음을 고려해 교실균을 배치했다.

'그린' 요소를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 클러스터별 외부공간은 4가지 색을 지닌 체험중심 마당으로 구상해 인근의 어린이 공원과 연계성을 강화했다.

위례초 설계공모 당선작은 '자라는 숲(Growing Forest)'이라는 컨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6386

㎡ 규모로 지어지게 된다. 삭막한 고층 아파트 사이에서 학교 숲 체험 공간을 통해 소통과 창의성, 열린 사고 신장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특히 획일적인 학교 구조에서 벗어나 곳곳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숲속 체험형 공간을 배치하고 생활 속 환경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정과 연계한 놀이 공간을, 디지털과 자연을 융합한 맞춤형 학습이 이뤄지는 교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내일 지속가능발전 리빙랩 포럼 개최

돌봄 전환 관련 대학원 역할 토론

고려대학교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한국리빙랩네트워크,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4회 포럼에서는 근본적인 돌봄 전환과 관련해 리빙랩 기반의 임무 지향적 연구를 위한 대학원의 역할에 대해 토론 등을 진행한다.

이우균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소장

/이현진 기자

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김성철 교수(고려대 4단계 BK21 미디어교육연구단 단장), 이동훈(고려대 4단계 BK21 정보보호교육연구단 단장), 이상근 교수(고려대 4단계 BK21 인공지능교육연구단 단장), 정혜주 교수(고려대 4단계 BK21 러닝헬스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단장)가 참여해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혁신에 대해 토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세종대 '잔인한 오락' 서울무용제 대상

세종대학교는 김형남 무용과 교수가 연출한 '잔인한 오락'이 제42회 서울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무용제는 1979년 '대한민국무용제'로 처음 시작해 매년 개최되며, 우수한 창작무용 공연을 발굴해 대한민국 무용 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잔인한 오락'은 김형남 교수와 텃마루 무용단이 함께 만들어진 작품이다. 텃마루 무용단은 세종대 동문 무용단으로, 1989년에 이어 이번에도 대상을 받아 서울무용제 역사상 유일한 2회 대상 수상을 기록하게 됐다.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 고객감동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고객감동경영대상'에서 교육서비스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는 평소 직무교육 콘텐츠, 한국어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운영해 사회적 수요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수상했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독거 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을 체결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위한 직무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했다.

/이현진 기자



지난 7일 열린 '2022 고객감동경영대상'에서 영규속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오른쪽)이 교육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건국대 학생 정책제안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 참여한 정책제안으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과 광진구청장 표창을 받았다.

11일 건국대에 따르면 정치외교학과 2021학년도 시민정치론 수업(지도교수 이현출)을 들은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와 광진구청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린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2개 팀이 권익위원장상, 8개팀이 광진구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여성안심귀가 QR코드 제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춘거리 브랜딩 ▲공실·노후 주택 등을 이용한 핵심 자족시설 운영 등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현진 기자